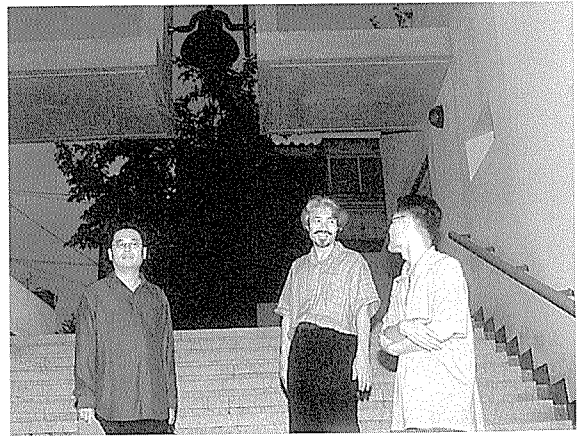


## 고요한 열정과 꿈꾸는 자의 눈 Silent Passion and a Dreamer's eyes

함성호 / Eon건축  
by Ham Sung-Ho



대담광경 (왼쪽:김승귀, 가운데:곽재환, 오른쪽:함성호)

곽재환의 고요한 열정에 대해 생각한다.

대체로 그의 그림에는 붉은 색깔과 녹색 계열의 색조들이 많이 쓰인다. 선들은 거칠고, 힘이 넘친다. 그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한다. 소용돌이 같은 강한 자장들이 오래 그의 그림을 감상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직관적으로 가해진 거친 터치는 굽적하지 않고 세밀하게 여러 번 그어져 있으며, 소용돌이치는 강한 역동성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그림은 얼핏 보면 폭발적으로 분출하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치밀한 선들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젠가 한 번,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필자는 거실에 걸린 그의 자화상을 본 적이 있다. 강한 눈빛, 갈기처럼 이리로 저리로 채여진 머리카락, 힘이 넘치는 수염을 보고 필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마치 바람 속에서 계신 것 같네요.”

그는 웃었다.

“그—래?”

아마도 곽재환을 잘 아는 사람은 이, “그—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꽤나 다양한 쓰임새를 알 것이다. “……응?”이라는 말과 같이 적절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구사되는, 거의 의문형 어미처럼 사용되는 이 말은 때로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의 심경을 눈치채게 해주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어떤 작품을 보고,

“좋은데요.”

하면, 그는

“그—래?” 하고 응답하는데 이 말은 그런데 어떻게 좋느냐는 질문에 해당한다. 그 질문이 보다 적극성을 띠면 “어때—, 응?” 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질문을 받는

당사자는 좀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답이 시원치 않거나 당사자가 묻는 질문이어서 접대용 멘트라도 하게 되면 그는 금방,

“그—래?”

하고, 어미의 강세를 흐려버리면서 곧 침묵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냥 대화는 일상적인 얘기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그 때부터 대화는 별 재미가 없어진다. 그의 무심한 눈이 상대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천진함으로 빛나는 때가 바로 그가 “어때—, 응?” 하고 묻는 순간이고, 그가 그의 건축에 대해 말할 때 나는 그의 자화상의 형형한 눈빛을 본다. 빛나는 안광. 그에게는 그런 광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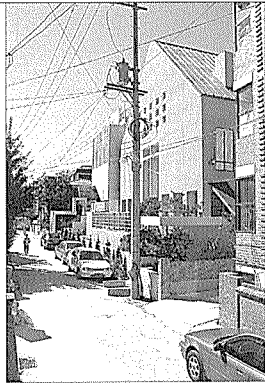
### 광기

별판한복판에꽃나무하나가있오. 근처에는꽃나무가하나도없오.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열심으로생각하는것처럼열심으로꽃을피워가지고섰오.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갈수없오. 나는막달아났오. 한꽃나무를위하여그러는것처럼나는참그런이상스런흥내를내었오. - 이상의 <꽃나무>전문 -

자신의 내면을 오래도록 지루하게 주시하는 인간들이 있다. 대저 풍경이란 내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욱 어두워지는 세계가 있다. 필자는 이런 시를 쓴 적이 있다.

(새는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골몰했길래  
저렇게 공기처럼 가벼운 날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곽재환의 눈은 그런 골몰로 가득 차 있다.



제일영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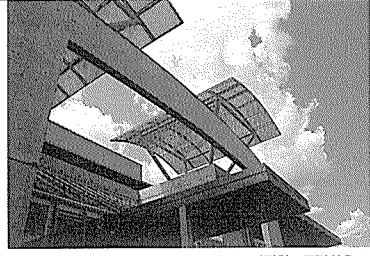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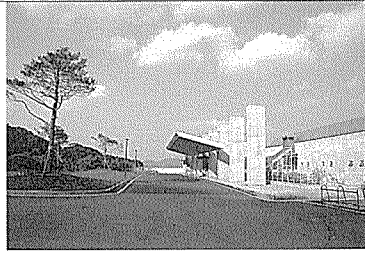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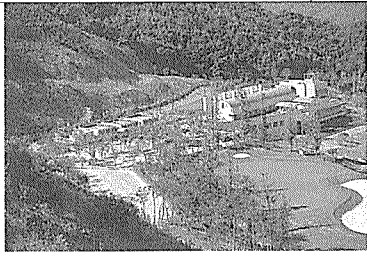
어쩌면 그에게는 외면의 풍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심지어 그가 창천을 바라보며 토하는 한숨 가까운 찬탄에서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내면을 본다. 그는 하루 종일 그의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의 스텝들은 그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다. 거기서 그는 끝없는 사색에 잠겨 시간을 잊을 때도 많고 아니면 끝없이 무언가를 스케치한다.(그의 스케치는 그대로 현장에 보내도 시공도 면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정평이 나있다. 그것은 이미 그가 주어진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가 그의 사무실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는 중심이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객재 환은 우리 속에서 튀는 사람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게 깔려있고, 열정적으로 무엇을 변론하는 일도 필자는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사안에 대해서는 짧게, 그나마 단호하지 않게 답하는 그의 모습은 일견 답답하게도 보인다. 글썄, 그에게는 그런 잘 모르는 어두운 세계가 있다. 그의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는 늘 오리무중이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추적을 지레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객재환의 풍경에는 늘 고립과 고독의 냄새가 묻어있다. 그리고 그 고독에는 왠지 모르게 순교 받고 싶어하는 나무의 풍경이 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零下 十三度  
 零下 二十度 地上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起立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零下에서  
 零下으로 零下 五度 零下 十三度 地上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전문 -

이상의 꽃나무와 황지우의 꽃피는 나무의 풍경은 객재환의 내면 속에 다 같이 존재하는 다른 몸을 이룬다. 이상의 꽃나무에는 없는 황지우의 굵은 방향성과 황지우의 꽃피는 나무에게는 없는 이상의 분열이 객재환의 내면에는 동시에 존재한다. 말하자면 분열과 열정이. 어떻게 한 인간에게서 분열과 열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분열이 가짜든가, 열정이 가짜일 것이다. 왜냐하면 분열은 집착으로부터의 도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객재환의 내면의 풍경은 분열처럼 보이는 광기의 소산임이 자명해진다. 그렇듯이 건축에 대한 객재환의 열정은 광기에 가깝다. 그는 약한 인간이면서 독한 건축가다.



비전힐스클럽하우스

곽재환이 김중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는 항상 몇 일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다 납품을 끝내고는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맞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에게 가졌던 존경심도 존경심이었던지만, 그 스스로 품고 있었던 건축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항상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그의 그런 모습은 항상 스태프들에게는 하나의 경이였을 것이다. 그런 경이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의 일화는 곽재환이란 건축가의 외골수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역시 그 날도 몇 일 밤을 새우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시간은 새벽을 달리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지치고, 아마도 그는 예의 그 꼴꼴한 자세로 도면위에서 몰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벽에 그를 찾는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어?”

“당신이야.”

“그랬어?”

“어.”

“갔어?”

“됐어.”

전화는 끊어졌고, 다시 그는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갔다. 이 짧은 전화 통화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스태프들 중의 하나가 무슨 전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응. 집에 도둑이 들었데”

그 때 스태프들은 질려 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는 이 시간에 당신의 전화냐는 거였고, “그랬어?”는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에 대한 응답이었고, “갔어?”는 그래서 도둑은 갔냐는 얘기고, 전화 할 정도니 몸은 상하지 않았으니 ‘됐다’는 얘기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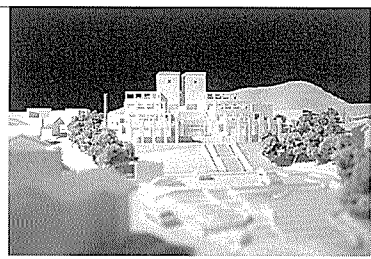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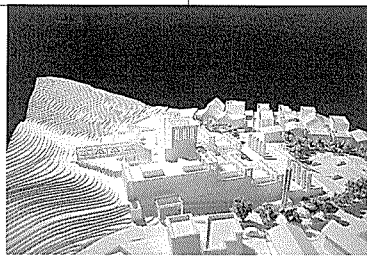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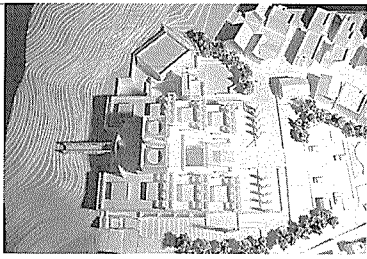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또 곽재환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욕심은 유명하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거의 욕심에 가깝다. 아마도 한국 건축계에서 그처럼 많은 문인들과 교유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는 곽재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소설가 이제하, 박인홍을 비롯해서 시인 조병준, 박남준, 황인숙, 조은과 같은 문사들이 포진해 있다. 물론 곽재환이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애정과 그 스스로의 기질 탓이겠지만 어쨌든 그의 스승 김중업이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문학이 꾸는 꿈과 건축이 꾸는 꿈을 같이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내면을 드러다 보는 일에 열중해 있다. 외면의 풍경이 부재하는 건축. 글썄 그런 건축의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

### 초현실주의자의 풍경

그렇다면 그의 광기에 사로잡힌(이제 ‘형형한’이라는 형용사는 지워진다.)눈이 보고있는 풍경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곽재환에게 있어 건축은 대지에 뿌리 박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면 그의 건축의 공간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모든 예술의 공간이 현실과 유리 된 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곽재환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가? 곽재환은 이런 단어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화(和), 명(明), 락(樂), 정(正), 청(淸), 이들 다섯 가지의 가치를 나는 제각각 인식, 학습, 유희, 작업, 기원의 집에 필요한 내 건축의 정신적 지표로 삼는다. 그 중 화(和)는 나머지 네가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명략정청은 모두 화다. 화는 다섯 가



은평구도서관

지 격(格)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이며, 명락정청은 그곳에서 비롯한다. 그래서 화는 화의화, 명은 화의명, 락은 화의락, 정은 화의정, 청은 화의청이다.

이 고답적인 문장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 삶, 삶, 높, 품, 넓이라는 다섯 가지 단어가 표상하는 현실의 문제를, 화(和)명(明)락(樂)정(正)청(淸)이라는 형이상적인 문제로 환원해서 건축을 생각한다는 작가의 건축관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광재환 자신은 그가 화(和)라는 개념을 말하듯이 환원이 문제가 아니라 길항의 문제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광재환이 추구하는 불가능한 이상 일 위험성이 있다. 무릇 추락하는 의지는 한 세계를 버리기 마련이니까.

따라서 화(和)에 귀착되는 그의 논지와 달리 광재환의 건축은 빛에, 청(淸)에, 우주에 대한 물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그의 또 다른 표현으로 '누(樓)와 정(亭)'으로 드러나는데 이 주제는 비전힐스 골프 클럽 하우스에서도, 그리고 영광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탐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가 비록 '누(樓)와 정(亭)'이라는 우리 옛 건축의 어휘를 쓰고 있지만 사실 광재환의 '누와 정'은 성리학자들의 그것과는 달리 상당히 개인적이다. 그에게는 성리학자들의 격물(格物) 보다는 보다 직관적으로 우주 자체의 심상에 도달하고자하는 장소에 가깝다. 그래서 비전힐스의 옥상에 드리워진 날개는 거의 땅속에 파묻힌 건물의 본체를 마그리뜨의 그림처럼 부유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영광교회의 계단 꼭대기에 기도소처럼 존재하는 장소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영원을 갈구하는 수도승의 사색처럼 침묵하고 있다. 얼핏 보면 대단히 힘차고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극한 폐쇄성이 깃들어 있는 것도 바로 본질에, 그의 표현

대로라면 '삶'에 다가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전힐스처럼 그것이 날개의 모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영광교회처럼 천장이 없는 박스의 모습을 하고 있든지, 단순한 격자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간에 그것의 폐쇄성은 그가 추구하는 정신적 지향점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바로 그 비현실성에 광재환의 현실성이 존재한다는 이 극적 아이러니로 인해 그의 풍경은 초현실적인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사실 초현실적인 풍성함이란 폐허의 현실과 다른 말이 아니다. 항상 초현실주의는 폐허위에서 구축된다.

그 폐허는 비전힐스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나타나고, 영광교회에서는 삶의 문제로 나타나며, 드디어는 은평구 도서관에서 그 자체 폐허로 나타난다. 폐허위에서 구축되어지는 건축이 무엇이겠는가? 은평구 도서관은 거대한 신전처럼 서향을 하고 앉아있다. 거대한 하나의 폐허가 인류의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광재환은 오랫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기다려 왔다. 그는 오랫동안 직관이, 한 소식이, 무엇이 스스로 그렇게 울 때까지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지냈던 것이다. 필자는 그런 그를 십 년 동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건축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마도 거꾸로 그는 필자에게 시를 얘기하고 필자는 그에게 우리 건축 현실에 대한 단상을 말하곤 했다. 간혹 그가 필자에게 시를 읊어 주었고, 필자는 노래를 불러 주었던 것 같다. 필자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광재환도 기억하지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풍경 속에는 늘 가득한 하나가, 푸른 바다처럼 넘실대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